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나는 누구를 어떻게 증언하기에 신명나하는가?

오늘은 대림 제3주일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을 지닌 ‘가우다떼’(Gaudate)주일입니다. 같은 의미의 ‘레따레’(Laetare)주일(사순 제4주일)과 함께 장미주일이라 불리고 장미색 제의를 입었고, 입당송에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필립 4,4-5참조), 그리고 화답송에서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루가 1,46-47) 등에서 ‘기쁨’을 주제로 전개되고, 그 동기는 ‘구원’, 즉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면 지쳐서 포기하거나, 무엇을 기다리는지 잘 모르게 되거나,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하여 우리의 기다림으로 주어질 결과에 대해서 미리 조금 보여줌으로, 지쳐 중단하거나 느슨해지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주일입니다. 미리 앞당겨 그 기쁨을 맛보게 함으로 희망으로 기다림을 지속하여 구세주의 탄생을 맘껏 기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 즉 보조역을 진실하고 성실하며, 겸허하게 수행하여 성탄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공과 보조역의 구분을 명확하게 지을 수 없도록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기쁜 성탄을 맞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예언적 사명입니다. 빛, 즉 예수를 증언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증언이란 직접적인 인식과 체험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결국 증언이란 진실과 거짓, 빛과 어둠, 신앙과 불신 등을 이미 체험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과연 나는 내가 고백하는 신앙에 확신이 있습니까?

요한은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요한 1,20), 엘리야도 아니다. 예언자도 아니다. “나는 이사야 예언서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요한 1,23)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말의 소리는 그 말의 내용을 전달하고 그 일을 마칠 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말은) 더욱 커져야 하고 나는(소리는) 작아져야 한다며 자기 임무를 마치고 가면 “이것으로 나는 기쁨에 넘친다.”라고 하며 사라져 버립니다.(성무일도 대림3주일 둘째 독서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의 강론 참조)

우리에게도 요한처럼 진실하고도 성실하며 겸허한 자세가 있어야만 성탄의 신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 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거룩한 분을 소개하고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께 영광이기보다 내게 기쁨을 넘어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모전동 본당 이준건 콜베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며 자선주일입니다. 자선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주님께서 자신을 송두리째 내주신 성체성사의 나눔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신앙행위입니다. 이 전례 중에 가난하고 병든 이들, 소외된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입당성가 : 91번 '구세주 빨리 오사'

본기도

† 하느님, 하느님 백성이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이사야서 61장 1절-2절, 10절-11절

안 내 : 이사야 예언자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가난한 이들, 잡혀간 이들,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주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화답송 : ◎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제2독서 : 테살로니카 1서 5장 16절-24절

안 내 : 바로오 사도는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묵 상 :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일상은 빛이신 주님께 대한 가장 아름다운 증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1장 6절-8절, 19절-28절

강 론 : '나는 누구를 어떻게 증언하기에 신명나하는가?'(1-2쪽)

예물준비성가 : 332번 '봉헌'

영성체성가 : 151번 '주여 임하소서'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 위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침묵>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받은 기름부음을 받은 메시아 예수님께서서
가난한 이들, 마음이 부서진 이들, 갇힌 이들, 포로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 고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침묵>

끓주리며 추위에 떨고 있는
그래서 위로를 받아야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격려하는 이들이 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메마른 사막에 아름다운 샘이 되도록...

공지사항

파견성가 : 97번 '구원의 메시아'

※ 공소사목 성금

지보공소	300,000원	백산공소	100,000원
김학진님	50,000원	장영위님	50,000원
김태숙님	30,000원	낙동공소	100,000원
권오탁님	50,000원	이계섭님	50,000원
한정식님	50,000원	안종구님	50,000원
오춘구님	50,000원	김재순님	30,000원
정리공소	50,000원	조동희님	70,000원
전곡공소	50,000원	송순열님	50,000원
상광공소	100,000원	최병수님	30,000원
김득순님	10,000원	사별퇴강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11,59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림

■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

- 방법 : 1.본당에 준비된 서명지 이용
2.온라인을 통한 청원
- * 신부님들께서는 공문 천안교 제2017-106호를 보시고 신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수거된 서명지는 2018년 1월 31일까지 주교회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신년인사회

- 일시 : 2018년 1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목성동 주교좌성당
- 주례 :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초등부 복사단 연수

- 일시 : 2018년 1월 3일(수)14:00-4일(목)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첫 영성체를 한 후 복사단 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어린이
-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도구, 세면도구, 목주, 복사복(개인별), 옷걸이, 실내화, 복사복 입고 찍은 사진 1장
- 참가비 : 1인 30,000원
- 신청마감 : 12월 21일(목)까지
사목국(fax 856-6101)

■ 청소년 견진캠프

- 일시 : 2018년 1월 12일(금) 15:00
- 14일(주일) 17:00
- 장소 : 문경 성보촌 유스호텔
- 대상 : 교구 내 중·고등부 견진대상자 (현 중1-고2)
- 참가비 : 1인 80,000원

■ 안동교구청 사목국 직원 모집

- 지원자격 :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미혼), 문서편집 가능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운전면허 포함)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및 세례증명서
- 서류 접수 및 문의 : 12월 29일(금)까지
858-3114-5, kimatheo@hanmail.net
- 면접 : 서류 전형 후 개별 통보

■ 수취페 도미네 생활성가 대림피정

- 일시 : 12월 17일(주일) 19:30
- 장소 : 함창 성당

■ 꾸르실료 월례 미사

- 일시 : 12월 18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미사주례 :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성령 세미나

- 일시 : 2018년 1월 5일(금) 14:00 - 7일(주일) 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회비 : 10만원

■ 남성 제42차 꾸르실료

- 일시 : 2018년 1월 11일(목)16:00-14일(주일)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 120,000원
- 추천 인원 : 각 본당 3명 내외
- 신청 : 12월 22일(금)까지
- 자격 : 영세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를 받은 분, 65세 이하
- 신청처 : 본당신부님, 꾸르실료 간사

■ 제85차 ME 주말

- 일시 : 2018년 1월 19일(금)19:00-21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신청마감 : 1월 8일(주일)까지
- 자격 : 혼인한지 5년 이상 된 부부, 짝교우, 비신자, 타종교인 가능, 사제, 수도자
- 문의 및 신청 : 안동ME대표부부 (010-6580-8408, 010-6500-8408)

■ 2018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 대상 : 세례 받은 평신도와 수도자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 내용 : 성서, 교의, 전례 등 26과목
- 원서접수 : 11월 13일(월) - 2018년 2월 9일(금)
- 문의 : 02)745-8339, (우편신청가능) ci.catholic.ac.kr (원서다운가능)

■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18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 목적 :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 부문 :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 신청기간 : 12월 18일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 cafl@cbck.or.kr
- 문의 : 주교회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02-460-7533)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연대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합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가 6.36).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가 10.37).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사회현상 중 하나인 ‘1인 가구의 증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소비 형태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고 상업적인 부추김과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확대로 또 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자발적인 독립과 고립을 선택하고, 나 혼자만의 행복과 안락함을 제일 중요한 우선의 가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고립과 극심한 외로움으로 이어져 홀로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 강대국들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난민수용을 거부하는 고립주의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104차 세계 이민의 날 담화를 통해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시킵시다.”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시대에 만연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고통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상과 이런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현실을 끊임없이 비판해 왔습니다. 교황의 이런 비판은 무관심의 세계화가 우리를 서서히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자기 안에 가두는 인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교황은 첫 교황 권고인 「복음의 기쁨」에서 우리 시대의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집 없는 노인이 죽은 소식은 뉴스가 되지 않고, 주식 2%가 하락한 것은 뉴스가 되는 것인가요?”(67항, 59항 참조)

“가난한 이들의 외침을 흘려듣지 말라!”고 외치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상과 우리 사회 안에는 소수 특권층의 손에 축적되는 철면피한 부(재물)”가 있음을 경고합니다. “고통과 소외, 착취와 폭력, 고문과 투옥과 전쟁, 자유와 존엄성의 박탈, 무지와 문맹, 위생의 비상사태와 일자리의 부족, 인신매매와 노예 상태, 추방과 극빈, 그리고 강요된 이주의 흔적을 지닌 수많은 얼굴들이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며”, “가난은 비열한 이득을 위해 착취당하고 권력과 돈의 논리에 짓밟힌 남녀들과 어린이들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 즉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358항)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마태 25.35-36)는 주님의 말씀은 인간을 존엄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빈곤과 소외에 대하여 우리가 등을 돌리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씀하십니다(『자비와 비참』, 19항).

이런 이유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숭고한 가치체계를 허물고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소외시켜 인류 공동체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나를 타인, 특히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개방하고,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서 인격적이고 영적인 나눔이야말로 개인과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할 수 있게 하는 ‘온전한 인간 발전’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자비의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공격에 맞서 연대를 이루어야 하고, 여전히 자비의 활동들을 끊임없이 찾을 것을 촉구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기념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자비는 사랑의 구체적인 활동이며 이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벽을 허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낮고 가난한 이로 오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의 고통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자선과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대의 신자에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동시에 종교의 소속과는 무관하게 모든 이들이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연대와 형제애를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저는 올해 자선 주일을 맞아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이웃과의 형제적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본이자 가장 귀중한 보물이며, 그것은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양한 빈곤을 물리치고 형제애를 증진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연대로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데에 나서도록 초대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외치는 초대를 외면하지 맙시다! 마음의 문과 성당의 문을 활짝 열고 손을 내밀어 가난한 이들을 맞이하고 사랑합시다!

기쁨의 원천인 사랑을 직접 보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형제적 친교를 경험하는 사랑 실천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2017년 12월 17일, 자선주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윤희 주교



세월의 무게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해가 바뀌기 전에 딸들에게 다녀오려고 하니 쉽지가 않다. 주말마다 이런저런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서다. 연중에는 조용하더니 연말이 다가올수록 행사가 몰린다. 그동안 못다 한 일, 미뤄둔 일들을 마무리해야 하니 다들 마음이 급해지는 시기이다.

또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세월은 변함없이 흐르는 것이지만 연말만 되면 생각이 많아진다. 하루해는 그렇게 길더니 모아놓은 한 달, 한 해는 어찌 이리도 빨리 지나가는지 놀라게 된다. 뒤돌아보면 늘 미련이 남아 가는 세월을 잠시 붙잡아 두고 싶다.

아쉬움 때문에 연말은 더 분주해진다. 연초에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한 아쉬움, 무언가를 하려다 하지 못한 아쉬움, 또 한해를 보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큰 탓이다. 남은 기간 동안이나마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고 싶은 것이다.

욕심이 과한 탓인지는 모르겠다. 지금까지 살면서 “올 한 해는 최선을 다했어,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냈지.”라고 만족해 본 기억이 거의 없다. 늘 아쉬웠다. 그렇다고 보람 있고 감사할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건강하게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다. 그래도 연말이면 회한과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

올 10월 31일이었다. 그날 미사는 조금 특별했다. 신부님은 강론을 시작하면서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밤이니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했다. 신자들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잊혀진 계절”을 합창했다. 나도 같이 노래를 하며 남다른 감회에 젖어들었다.

유난히 10월의 마지막 날을 챙기는 사람이 있었다. 매년 10월이 되면 만날 때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냥 보낼 수 없다며 시간을 비워두라고 했다. 늘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들인데 굳이 특정한 날에 따로 만나야 한다는 그분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나이 드신 분의 수다려니 했다. 특별히 10월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그런데 올해, 병상에 있는 그 분을 뵈고 나니 그 수다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 그 분은 몸이 불편해 밖을 다닐 수가 없다. 가족들을 위해 억척스럽게 일하다 보니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거동이 불편해지는 몸을 보면서 그분은 마음이 조급해졌을 것이다. 천성이 낙천적이긴 해도 흐르는 세월 앞에서 느낀 무력감은 남달랐을지 모른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추억을 만드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것이다. 노년의 그분에게 10월의 마지막 밤은 그래서 의미가 있었을 것 같다. 그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다.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바쁘다. 전화로 만남을 대신한다. 기념일을 챙기고 본인이 아프면서 병상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서 가장 큰 소원이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한다. 봉성체를 하게 되면서, 성당에서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기쁨인지를 알겠다고 하신다. 그분의 간절함이, 식지 않는 열정이 안타까우면서 부럽다. 아직은 충분히 건강하셔도 될 나이에 활동할 수 없는 그분을 생각하면 세월의 무게가 두렵게 다가온다. 마음이 스산해진다.

나도 어느새 세월의 무게를 느끼며 살 나이가 되었다. 내게 주어진 시간도 많이 줄었다. 해가 갈수록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아질 것이다. 한해 한해가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다. 현직에서도 물러났으니 욕심을 버리고 실천할 수 있을 만큼의 계획을 세워 살아 보려한다. 이제는 조금 덜 후회하고, 덜 미련이 남는 한 해를 보내고 싶다.

무술년 새해가 기다려진다.